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,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3. 30.(월)

# 정부, 유류가격 급등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시행

- 산업통상부 장관, “석유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”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는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월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.

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,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중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하기로 하였다. 김 장관이 오늘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소재 A 자영 주소로서 3월 26일 대비 하루만에 휘발유, 경유를 각각 214원, 216원 인상하였다.

이에 합동 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의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,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상황, 석유제품 품질,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,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.

오늘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며,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,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.

김 장관은 “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”고 밝히면서도 “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

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”고 지적하면서 “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“이라고 강조하였다. 끝.

| 담당 부서 | 자원산업정책관<br>석유산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양정화 (044-203-5220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윤종성 (044-203-5221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참고** **범부처 합동점검반 개요**

## □ 추진 배경

○ 중동 사태로 석유시장 내 **불법 석유 유통 유인**이 **증가**함에 따라,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강력하고 선제적인 특별점검 필요

⇨ **「범부처 합동점검반」**을 **구성**하여 불법석유 유통 **특별점검 착수***

* 산업부, 공정위, 국세청, 경찰청, 지자체, 석유관리원 등, 3.6일부터 운영

## □ 특별 점검

○ **(대상)** 각 부처 등에 산재한 **빅데이터**를 **취합·분석**하여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(**高위험 주유소**)**를 선별**

○ **(내용)** 가짜 석유 등 품질·유통*(산업부·석유관리원), 담합 등 가격 이상(공정위, 지자체), 탈세(국세청) 점검 등 **분야별 점검 체계 가동**

* 암행 단속, 취약 시간(야간, 휴일) 점검, 등유 불법판매 등 행위별 맞춤형 단속

○ **(신고) 국민 신고 채널**로서 **오일콜센터** 운영(1588-5166, 석유관리원)

**< 오일콜센터 운영 체계 >**

| 신고접수 | ⇨ | 적정성 검토* | ⇨ | 검증결과통보 | ⇨ | 현장점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능별 민원 배부<br>(석유관리원 → 기관) | | 기관별 점검<br>적정성 판단 | | 합동점검 등 협의<br>(기관 → 석유관리원) | | 산업부·석유관리원,<br>지자체, 경찰 등 |

* 각 기관 자체적으로 민원 내용을 분석 후, 현장 점검 필요 여부 결정

## □ 향후 처리방안

○ 법령 위반행위 적발 시, 각 부처 소관 법령에 따른 제재 부과